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 주간 - 광주 경영계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mailto:gjef3425@naver.com)

## 광주은행

### ◆ 무진기연 방문 원전설비 중소기업 성장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 하남공단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무진기연을 방문해 의견 청취와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무진기연이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추가 수주, 그리고 미국 미주리대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수주

를 통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역 대표은행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6000억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6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지역 경제 현안을 고려한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됐으며, 노무비나

채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 자금, 긴급결제 자금 등 업체의 요청을 신속히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자금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발 빠른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광주신세계

### ◆ 개점 29주년 감사대축제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에 따르면 19일 “개점 29주년을 기념해 내달 1일까지 사은품 증정과 특가 상품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전 브랜드 합산 당일 신세계 제휴카드로 15만원 이상 구매 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원권 1천개를 선착순 증정한다. 인기 브랜드의 29개 품목을 엄선한 특가전도 기획했다. 이와 동시에 인기 골프클럽 등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도 진행된다. ‘마제스티’ 프레시티지오 12 남성 아이언 9I를 480만원에 구매하는 등 공동구매 이벤트도 열린다.

개점 29주년을 맞아 마련한 럭키드로우 행사에서는 참여한 모든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5~30%의 신백리워드 쿠폰을 제공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가 29주년을 맞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 스위스 골프웨어 ‘헬베스코’ 오픈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26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국내 첫 매장을 오픈한 헬베스코가 지난 23일 호남 최초로 광주신세계 본관 6층에 정식 매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헬베스코는 글로벌 패션 기업인 폰드그룹에서 진행하는 첫 골프웨어 브랜드 론칭으로 프리미엄 골프화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스위스 장인정신을 담은 프리미엄 골프웨어 헬베스코의 국내 2호 매장을 광주신세계에서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디자인은 물론 퀄리티까지 차별화된 골프웨어를 찾는 고객들에게 헬베스코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글로벌모터스

### ◆ 전기차 주문 쇄도…GGM 또 일자리 늘린다



26일 광주글로벌모터스(대표이사 윤몽현)에 따르면 전기차 양산 성공으로 올 하반기 전기차 생산을 크게 늘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생산 확대를 위한 인력 보충과 전기차 품질 조기 안정화 등을 위해 수출차 전담 인력을 포함, 기술직 신입 사원 39명과 일반직 7명 등 모두 46명의 상생형 지역 인재를 공개 채용한다. 윤몽현 대표

이사는 “지난 15일부터 생산을 시작한 캐스퍼 전기차가 국내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주문이 쇄도하는 등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근로자 대부분이 연장 근무와 토요일 특근에 참여하고, 더불어 생산량 증가와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GGM에 부품을 공급하는 지역 협력사의 매출도 증가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GGM은 자본이 많은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회공헌 성격의 회사로 이번 공채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상생형 지역 인재를 선발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금호타이어

### ◆ 마제스티X컵 스크린골프 대회 성료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 '금호타이어 마제스티X컵' 스크린골프 대회가 1만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마제스티X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셔리 제품이다. 승차감 및 제동성능 극대화를 위

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컴파운드를 사용했고 자사 기존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눈길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하여 내구성을 업그레이드시켰다. 특히 타이어 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댄플 설계로 분산시키는 '패턴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했고,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행성능 및 마모성능을 향상시켰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이번 스크린 대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최고급 타이어인 마제스티X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더욱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로 금호타이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금호타이어 '마제스티 X'...입소문 타고 럭셔리 시장 주도



27일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에 따르면 마제스티 X는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Majesty SOLUS)'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셔리 제품이다. 최고급 세단과 수입차 등 고성능 프리미엄 시장에서 뛰어난 정숙성과 주행 성능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 3D 연동 사이프(3D

Interlocking Sipe) 입체 설계 기술을 반영해 트레드 블록의 강성 극대화로 상온·저온에서 제동력을 높이고 눈길에서도 조정 안정성을 향상한 것도 특징이다. 공기저항 최소화를 위한 프로파일 설계, 고분산 정밀 실리카 적용을 통해 회전저항(RR) 성능을 향상하고 연비 효율도 극대화했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국내 고급 세단 및 수입차의 승차감과 성능, 안정성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성능을 대폭 개선하여 소비자들에게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며 "마제스티 솔루스의 명성을 마제스티 X가 이어가는 만큼 금호타이어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 DH글로벌

## ◆ “기술력 향상 최우선 지역 고용 창출·경제 견인”



광주시 광산구 소재 (주)DH글로벌은 광주를 대표하는 생활가전 생산 기업이다. 삼성 OEM 전문업체로서 에어드레서, 냉장고 등 양문형 냉장고 및 스탠드 형 김치냉장고, 워터 디스펜서 등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핸들, 네이게이션 등 차량 부품업체(주)DH오토웨어)와 스티어링휠(Steering Wheel) 제조업체 대유에이피

(현 (주)DH오토리드)를 인수하면서 매출 1조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하고 있다.

이정권 회장은 “광주, 호남 지역을 사랑한다. 이 지역 대표 먹거리인 자동차 산업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투자를 더 확대하는 등 몸집을 키울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100년 기업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DH오토웨어

### ◆ DH오토웨어, 광주 미래차 생태계 조성 1천억 투자



DH오토웨어(대표이사 강대선)는 27일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신기술·신제품을 교류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글로벌 소부장 기술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광주시와 맺었다.

DH오토웨어는 이미 광주 빛그린산단에 2만4049㎡(7275평) 부지를 매입, 연면적 7895㎡(2388평) 규모의 1차 자동차 지그(JIG·제품을 고정하고 반복

적 제조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공구) 생산업체를 가동 중에 있다.

또 주변 대지 1만4916㎡(4512평)를 추가 매입해 평택공장 자동차 전장사업부 광주 이전을 목표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DH오토웨어 관계자는 “앵커기업 선정을 시발점으로 광주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는 마중물이 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요인인 인재 유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고용 창출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DH 그룹(회장 이정권)은 DH오토웨어와 함께, 생활가전기업인 DH 글로벌, DH오토리드, DH 정공 등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번 투자 결정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이정권 회장의 결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 보해양조

### ◆ 맥걸리에 소금 착! '쿠켓 솔티드 오리지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최근 푸드 커머스 기업 쿠크트와 편의점 체인 GS25와 협업하여 '쿠크트 솔티드 오리지널'을 선보였다.

21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각 기업의 강점을 잘 살린 협업의 결과물이다. 보해는 세계 3대 소금을 활용한 독자적인 '솔트 레시피'로 주류 업계에서 혁신을 이끌어온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앞서 보해양조는 세계 3대 소금을 활용한 '보해소주'를 출시하며 주류업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던 소주의 쓴맛을 '단맛'으로 상쇄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해양조는 소금 레시피를 활용해 더욱 부드럽고 깊은 풍미를 구현했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소금이 주는 독특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주류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전남농업기술원과 지역 농특산물 가공제품 소비 확대 MOU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23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해양조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 생산과 소비를 확대해 경제 자립을 촉진하려는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서의 의지가 담겨 있다.

보해양조는 최근 완도 다시마를 활용한 '다시, 마주'를 출시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보해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으로 더욱 발전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디케이

###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 개최



(사)평동산업단지 운영협의회(회장 김보곤)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1층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청은 9월 동행 축제 행사’에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구했고 광주시는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관련해 대상 추천 및

홍보를 요청했다.

(사)평동산업단지 운영협의회 김보곤 회장은 “지역 산단입주기업의 성장지원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등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역의 다양한 업종과 분야의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전KDN

### ◆ "지하 배전 상시 감시 확대" 한전KDN, 재난 대응력 높였다



26일 한전KDN(사장 김장현)에 따르면 최근 전국 80% 배전 전력구에 상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이에 한전KDN은 전력구 화재 감지뿐 아니라 침입자 감시, 온도, 침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배전전력구 종합감시시스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이러한 관리 한계 극복에 나서게 됐다.

한전KDN이 개발한 '전력구 종합 상시 감시시스템'은 한전 남서울본부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현재 409개 전력구와 11개 공동구 등 전국 배전전력구의 80%에 적용 설치됐다. 해당 솔루션은 재난방지와 함께 각종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한 환경감시와 함께 수위, 환기, 조명 등을 제어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전력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김장현 사장은 "배전전력구 종합감시시스템은 화재, 침수, 출입자 등 환경감시와 케이블 접속점, 국부 소화장치에 대한 설비 감시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미 상시 감시를 통해 케이블 이상 감지,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대응 효과가 입증된 만큼 향후 개선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안정된 배전전력구 운영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 한전KPS

### ◆ 지역사회 범죄 예방·피해지원 앞장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 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8월 23일 전남 강진경찰서를 찾아 범죄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비용 14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이동형 CCTV 설치비 지원은 농산물 절도와 같은 범죄 및 고정형 CCTV가 없는 도로의 교통안전 등 농어촌 지역

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의 사건·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김홍연 사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의 노고와 함께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1659회 금요조찬 포럼>

### 중소기업을 위한 ESG변화 관리 (양해성 팀장)



1659회 금요조찬포럼은 IBK기업은행 양해성 ESG컨설팅 팀장을 초청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ESG변화 관리」를 주제로 ESG 공급망 실사 대응 방향과 중소기업의 현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ESG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재무 가치의 극대화만이 아닌 환경, 사회, 윤리적으로 관리돼야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ESG를 왜 해야 하나면, 외부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업이 어렵다고 ESG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경영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은행권에도 규제기관에서 ESG경영을 안 하는 회사에는 이제 서서히 대출 규모를 축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은행에서는 현재 ESG관련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1.5%p금리를 인하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금리 인센티브를 받고 우리 회사는 금리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ESG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 앞으로 패널티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모가 순매출에 5%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대부분의 기업이 영업이익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패널티를 받는다면 영업이익이 없어지고 회사가 존립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현대차가 공급망 지속가능성 ESG평가 기반 표준계약서(CSDDD)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B2B, B2C회사 모두 이 표준계약서의 대상이 되고 ESG경영 수준이 미달하는 1차 협력사에서는 내년부터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서 우리 회사는 2차, 3차 회사라고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안됩니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에서부터 운송까지의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올해 반도체를 만드는 대기업에서는 납품 규모가 100억정도 되는 협력사에 ESG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 공장장, 외국인 노동자 7명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환경 허가, 오염 방지, 자원 절감, 수자원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80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일주일 동안 보고하라고 합니다. 급하게 컨설팅 해드려서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대기업과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대부분이 ESG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비용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진단을 받고 처방전이 나와야하는데 문제점조차 모르니까 처방이 안 나오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40점, 50점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 경제동향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4년 8월)」 발표 (8.22)

○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2024년 2.4%, 2025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지난 '24.5월 전망 대비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0.1%p 하향 조정,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동일하게 유지

※ 지출항목별 증감률 전망치(%) [민간소비] 1.8('23)→ 1.4('24)→ 2.2('25) [재화수출] 2.9('23)→ 6.9('24)→ 2.9('25) [건설투자] 1.5('23)→ △0.8('24)→ △0.7('25) [설비투자] 1.1('23)→ 0.2('24)→ 4.3('25)

- 2024년 3/4분기 이후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나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IT경기 호조, 방한 관광객 증대 등에 힘입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상반기중 크게 오르내린 내수는 기업 투자여력 증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재개하겠지만, 개선 상승 폭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칠 전망.

○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가 2%대 초반에서 안정된 가운데 농산물가격 상승률도 상당폭 둔화되면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5%로 예상.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2.1%로 전망.

○ 2024년 경상수지는 2024년 2월 전망치(600억달러 흑자)를 상회하는 730억달러 흑자로 전망. 2025년 경상수지는 2024년 2월 전망치(610억달러 흑자)를 소폭 상회하는 620억달러 흑자로 전망.

○ 2024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4년 5월 전망치(26만명)를 소폭 하회하는 20만명으로 전망. 2024년 실업률은 2.9%로 전망(2024년 5월 전망치와 동일).

○ 한국은행은 향후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미국경제 성장세, 반도체 경기와 관련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분석

### 〈 시나리오 1 : 미국 성장세 둔화 폭 확대 〉

- 미국 성장세 둔화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대외수요 감소뿐 아니라 외환·금융 경로를 통해서도 부정적 충격에 노출되어 2024년 성장률은  $\Delta 0.1\%p$ , 2025년 성장률은  $\Delta 0.3\%p$  하락할 것으로 추정. 물가는 파급시차 등 고려할 때 올해에는 영향이 제한적( $\Delta 0.0\%p$ )이며 내년중에  $\Delta 0.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시나리오 2 : 반도체 경기 개선 폭 확대 〉

- 반도체 경기 개선 폭이 확대되는 경우 소비 및 설비투자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 경우 성장률은 2024년  $+0.1\%p$ , 2025년  $+0.2\%p$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은 2024년에 큰 변화없이( $+0.0\%p$ ) 2025년  $+0.1\%p$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8.2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 $3.50\%$ )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3.50\%$ ) 이후 2024년 8월까지 20개월 연속  $3.5\%$  유지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수준( $3.50\%$ )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 통계청) :  $3.1('24.2) \rightarrow 3.1(3) \rightarrow 2.9(4) \rightarrow 2.7(5) \rightarrow 2.4(6) \rightarrow 2.6(7)$

##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발표 (8.20)

- 2024년 2/4분기 말 가계신용은 1,896.2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8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34.9조원 증가)

※ '24년 2/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 1,896.2조원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치

▶ 분기별 가계신용 추이(조원) :  $1,861.3('23.2q) \rightarrow 1,878.4(3q) \rightarrow 1,885.5(4q) \rightarrow 1,882.4('24.1q) \rightarrow 1,896.2(2q)$



- 부문별로는, 2024년 2/4분기 말 가계대출은 1,780.0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5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32.6조원 증가), 판매신용은 116.2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3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2.3조원 증가)

※ '24년 2/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 1,780.0조원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치

▶ 분기별 가계대출 추이(조원) : 1,747.4('23.2q)→ 1,761.7(3q)→ 1,767.3(4q)→ 1,766.4('24.1q)→ 1,780.0(2q)

※ 분기별 판매신용 추이(조원) : 113.9('23.2q)→ 116.7(3q)→ 118.2(4q)→ 115.9('24.1q)→ 116.2(2q)

### ◆ 통계청, 「2024년 7월 고용동향」 발표 (8.14)

- 2024년 7월 취업자는 2,88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2천명(0.6%) 증가

※ 취업자는 2021년 3월(31만 4천명) 이후 41개월 연속 증가

-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7천명), 정보통신업(8만 2천명), 운수 및 창고업(6만 5천명)등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건설업(△8만 1천명), 제조업(△1만 1천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만 7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 4천명)등 취업자는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27만 8천명), 30대(11만명), 50대(2만 3천명)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40대(△9만 1천명), 20대(△12만 7천명) 취업자는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9.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자는 7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명(△8.7%) 감소

-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5.5%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전체 체감실업률\*은 8.6%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5.4%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0.6%) 증가했고, 이 중 취업준비자는 6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6천명(△6.6%) 감소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4만 3천명 증가한 251만 1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8천명 감소한 38만 1천명 기록

### ◆ 한국은행, 「2024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8.21)

- 2024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0.4%)은 내렸으나 공산품(0.3%)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월비) : 0.2('24.3)→ 0.3(4)→ 0.1(5)→ 0.0(6)→ 0.3(7)
  - ※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3년 8월(0.9%)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5('24.3)→ 1.9(4)→ 2.3(5)→ 2.5(6)→ 2.6(7)
- (농림수산물) 농산물(1.5%), 수산물(2.2%) 등이 올라 전월대비 1.6% 상승(전년동월 대비0.7% 상승)
- (공산품) 화학제품(△0.1%) 등이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2.8%) 등이 올라 전월 대비0.3% 상승(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주택용전력(△12.2%) 등이 내려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금융 및 보험서비스(0.4%) 등이 올라 전월대 비 0.2%상승(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2024년 7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전년동월대비 4.3% 상승), 총 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전년동월대비 4.8% 상승)
  - \*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 한국은행, 「2024년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8.21)

○ 2024년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5\*로 전월대비 2.6p 하락하였으며, 2024년 9월전망 CBSI는 92.7로 전월대비 0.7p 하락

\* 전산업 CBSI 추이 : 91.3('24.4)→ 92.9(5)→ 95.7(6)→ 95.1(7)→ 92.5(8)

- (제조업) 2024년 8월 CBSI는 92.8\*로 전월에 비해 2.9p 하락하였으며, 2024년 9월전망CBSI는 93.7로 전월에 비해 0.5p 하락

\* 제조업 CBSI 추이 : 93.4('24.4)→ 94.4(5)→ 97.4(6)→ 95.7(7)→ 92.8(8)

- (비제조업) 2024년 8월 CBSI는 92.2\*로 전월에 비해 2.4p 하락하였으며, 2024년 9월전망CBSI는 92.0으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

\* 비제조업 CBSI 추이 : 89.8('24.4)→ 91.8(5)→ 94.3(6)→ 94.6(7)→ 92.2(8)

####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2024년 8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2p 하락하였으며, 2024년 9월 업황전망BSI는 72로 전월과 동일

\* 업황BSI 추이 : 71('24.4)→ 73(5)→ 74(6)→ 72(7)→ 70(8)

- (제조업) 2024년 8월 업황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2p 하락하였으며, 2024년 9월업황전망BSI는 73으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73('24.4)→ 74(5)→ 78(6)→ 73(7)→ 71(8)

- (비제조업) 2024년 8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하였으며, 2024년 9월업황전망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69('24.4)→ 72(5)→ 71(6)→ 71(7)→ 70(8)

### ◆ 한국은행, 「2024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8.20)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월중 100.8로 전월(103.6)대비 2.8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100.7('24.4)→ 98.4(5)→ 100.9(6)→ 103.6(7)→ 100.8(8)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73)는 전월대비 4p 하락  
하고 향후경기전망CSI(81)는 전월대비 3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145)는 전월대비 1p 상승, 임금수준전망CSI(120)는 전월대비 2p  
상승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 2.9%  
로전월과 동일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3.1('24.4)→ 3.2(5)→ 3.0(6)→ 2.9(7)→ 2.9(8)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  
(53.6%), 농축수산물(49.8%), 석유류제품(35.3%) 등 順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은  
8월 3.5%로 전월대비 0.1%p 하락

※ 물가인식 추이(%) : 3.8('24.4)→ 3.8(5)→ 3.7(6)→ 3.6(7)→ 3.5(8)



## 2. 노사동향

### ◆ 경총,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8.15)

○ 경총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수행) 결과를 8월 15일 발표함.

○ 연구 결과, 최준선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①충실의무의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②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위배되며, ③주주평등 원칙 훼손, ④소송증가 및 주주간 갈등 증폭 같은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 주요 내용 〉

○ [이사 충실의무 개념에 대한 오해]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뜻하는 것임.

- 즉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게 되면, 이는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사는 주주 전체의 총체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전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반비례적 이익’ 추구로 주주평등원칙 훼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회사법의 기본이념인 ‘주주평등원칙’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소액주주에 대한 ‘반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되어 주주평등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 반비례적 이익의 보장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와 충돌하며,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소수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어 주식회사의 경영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더할 위험이 있음.

○ [소송 증가 및 법체계 혼란 우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를오해한 주주들에 의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크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갈등 증폭 등 경영상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큼.

- 무엇보다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이사에 임명된 자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면 이사회 독립성과 우리 상법 및 민법 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해외 유사 입법례 없음]**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 법률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음.
- 미국 전체 50개 주(州) 중 48개 주의 회사법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음.

####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안내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공정채용을 실천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
- **(지원대상)** 민간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24년까지 채용을 시행하고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한 모든 기업·기관
- **(접수기간)** '24. 8. 12(월) ~ 9. 20(금) 18:00
- ※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상, 한국경총 회장상 등 포상 예정
- **(접수방법)**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E-mail 중 택일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 표준원으로 접수

#### ◆ 대통령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 폐기촉구

- 대통령은 8. 16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 요구
-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폐기
- 대통령실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

소조항을 추가하고, 여야 및 노사 당사자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

- 또한, 대통령실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조

○ 경제계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폐기 촉구

- 경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며,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즉각 재발의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8. 12,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기자 질의응답)

- 차기 국회 본회의는 8. 28 개최될 예정

○ 한편, 고용부는 8. 19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향후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 ◆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채널 개설 추진

○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한국노총(7. 29)에 이어 8. 21 민주노총을 방문해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참여 제안

※ 주요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 등(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고미경 사무총장 등

- 우원식 의장은 ① 현재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한계에 부딪혔고, ②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며, ③ 민주노총이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계파간 갈등 예상



### ◆ 금융·보건 분야 노사관계 불안 우려

- 금융산업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9. 25 파업 예고
  - ※ 금융노사(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노조)는 지난 4. 17부터 산별교섭을 진행했으나, 금융노조는 7. 24 교섭 결렬 선언
  - ※ 중앙노동위원회는 8. 13 조정중지 결정, 금융노조는 8. 28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예정
  - 금융노조는 ▲임금 5.1% 인상, ▲주4.5일제 실시, ▲은행 영업점 근로시간 단축 등 과도한 요구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 1.9% 인상을 제시
- 한편,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쟁의조정 신청(8. 13)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8. 19~23)를 거쳐 8. 29 총파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6.4% 인상,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12,760원, ▲직종별 적정인력 확보 등을 요구
  - 특히,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일부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구조조정, 무급휴직 등을 예고한 병원들을 중심으로 투쟁 조직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 ◆ 완성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계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 우려

- 기아차, 한국GM 등 일부 완성차사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임단협 난항 지속
  -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8. 19)에 이어 8. 21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전체 조합원 84.7% 찬성)로 쟁의권 확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주요 요구사항 : ▲기본급 159,800원 인상, ▲성과금(영업이익의 30%), ▲특별성과금(영업이익의 2.4%), ▲정년연장
  - 금속노조 한국GM 노사는 임단협 합의안\* 부결(7. 26) 이후 8. 16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사항 없이 종료

\* 한국GM 노사는 지난 7. 23 ① 임금 101,000원 인상, ② 일시·성과급 1,500만원 지급, ③ 부평·창원공장에서 생산 중인 기존 차종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한 물량 확보 등에 합의했으나, 투표 참여 조합원 52% 반대로 부결

- 한국GM노조는 기존 합의안보다 상향된 임금 및 성과급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게릴라 파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

○ 한편,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 교섭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8. 28 오후 3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주요 요구사항 : ▲기본급 159,800원 인상,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동일),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 포스코 노사는 6. 27부터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견지함에 따라 교섭 난항 지속

• 포스코 노조 주요 요구사항 :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자사주 10주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li> <li>•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li> <li>•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li> <li>• 2년후 : 1인 480만원</li> </ul>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li> <li>• 만 35세 ~ 49세 채용 시</li> <li>•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li> </ul>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인 이하 중소기업</li> <li>• 만 40세 이상 재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li> </ul>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li> <li>•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 이내</li> <li>•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li> </ul>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li> <li>•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li> <li>•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li> <li>• 취업매칭 지원</li> <li>•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li> </ul>	654-3427
6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미만 제조업 무상 컨설팅 지원</li> <li>• 회원사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시 전문가 자문·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li> <li>•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li> </ul>	716-3501

